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濟州學統) 연구

강동호*. 양진건**

- I. 서론
- II. 최익현의 생애와 제주유배
 - 1. 면암 최익현의 생애
 - 2. 제주유배와 생활
- III. 학통과 면암 최익현
 - 1. 조선시대 학통의 의미
 - 2. 화서학통과 면암 최익현
- IV.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
 - 1. 면암의 제주문인(濟州門人)
 - 2. 종유(從遊)의 학통
 - 3. 면암 학통의 독립운동
- V. 결 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면암 최익현 선생의 제주학통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생은 17개월 동안의 제주유배생활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였고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공유하였다. 여러 기록들을 통해 면암 문인을 확인하였으며, 종유자, 그리고 면암 학통으로서 제주항일운동을 펼친 인물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들은 면암에게 직접적인 학문적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의 사상적 정체성을

* 주저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암의 제주학통이라 규정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도 조선 정통(正統) 도학(道學)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 되었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생각한다.

주제어 :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 화서학과, 제주학통, 제주항일운동.

I. 서 론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은 조선말기 역사적 격변기에서 민족을 지키려 했던 조선 선비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린다. 그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무효를 위해 항일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자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 쓰시마 섬(對馬島)에서 74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다. 조선성리학의 정통을 잇는 조선말기 대표적 유학자에서 구국을 위해 의병장으로 나선 그의 삶은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암은 41세가 되던 1873년(고종 10) 이른바 「계유상소(癸酉上疏)」로 인해 제주에 유배된다. 그의 제주유배는 그에게는 고난이자 아픔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제주유림에게는 배움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조선시대 사대부(士大夫) 유배인들은 대부분 뛰어난 학자관료였고 따라서 그들의 유배는 해당지역의 학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학과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큰 스승이 없던 제주의 교육적 환경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최익현과 같은 거유(鉅儒)의 유배는 제주인들에게는 반가운 만남이 되었던 것이다. 면암 최익현은 제주유림들의 기대처럼 제주유배생활동안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펼친다. 그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필자는 그동안 몇 편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¹⁾

1) 고창석·양진건,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제 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양진건,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한국교육사학』24-1, 한국교육사학회, 2002.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살펴본 면암의 교육적 영향은 그의 사상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제주유배생활을 통해서도 주자와 송시열에 대해 끊임없는 존경심을 드러내었고, 화서학파에 대한 걱정은 물론 서원철폐에 대한 비통함 등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면암의 교육적 활동과 영향은 많은 제주유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장되었으며 그렇기에 그의 의미는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면암과 관계를 맺은 제주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면암의 교육적 영향력을 입증하는 차원에서의 검토였으며, 면암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수준의 언급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면암과 관계 맺은 제주유림들을 면암의 제주학통(濟州學統)으로 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통이라 함은 학문적 수수관계를 맺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계보(系譜)가 있어야 하며, 사상적 정체성(正體性)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면암과 관계 맺은 제주유림들은 이러한 학통의 개념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자 과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에 따라 면암 최익현의 생애와 제주유배생활을 살펴보고 조선시대 학통의 의미에 대해 검토한 후 면암의 제주학통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만, 면암의 생애와 사상 및 조선시대 학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이해의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양진건, 「조선후기 제주교육에 끼친 척사논의의 영향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0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7.

양진건·강동호,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서간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35-4, 한국교육사학회, 2013.

양진건·강동호,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인문학논총』제35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II. 최익현의 생애와 제주유배

1. 면암 최익현의 생애

면암 최익현은 1833년(순조33) 12월 5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岱)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찬겸(贊謙)이고 호는 면암이다. 그는 9세 때 김기현(金琦鉉)의 문하에서 잠시 동안 글을 배웠으나, 본격적인 학문 수업은 14세 때 양평의 벽계(蘗溪)에서 청화정사(靑華精舍)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던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에게 사사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이때 『격몽요결(擊蒙要訣)』·『대학(大學)』·『논어(論語)』 등을 외었으며, 면암이라는 호도 화서가 써준 것이다. 학문에 힘을 쏟는 집이라는 뜻으로 최익현은 그 이름대로 주자학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는 23세이던 1855년(철종6) 명경과에 급제해 승문원부정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면암은 이후 순강원수봉관을 필두로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1870년(고종7)에 승정원동부승지를 지냈다. 특히 수봉관, 지방관, 언관으로 재직할 때 불의와 부정을 척결해 강직성을 발휘하였다.

1871년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끈 대원군이 그 위세를 몰아 만동묘(萬東廟)를 비롯한 서원 철폐를 대거 단행하자 그 시정을 건의하기 위해 41세이던 1873년(고종10) 계유년 10월16일에 이른바 「계유상소(癸酉上疏)」를 올리게 된다. 이 상소를 계기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원군은 권장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고종의 친정(親政) 체제가 구축이 된다.

이후 면암은 호조참관에 임명되지만 부자 사이를 이간시킨 장본인이라는 탄핵을 받게 됨에 따라 이에 사직상소인 「사호조참판겸진소회소(辭戶曹參判兼陳所懷疏)」를 올려 민씨 일족을 비난한다. 결국 상소의 내용이 과격하고 방자하다는 이유로 1873년 11월 10일 제주도 유배형을 받게 된다.²⁾

1875년, 제주도에서 17개월의 유배생활에서 풀려난 후 이듬해 명성황

2)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149쪽.

후 척족정권이 일본과의 통상을 논의하자 격렬한 「척사소(斥邪疏)」를 올려 조약체결의 불가함을 역설하다가 다시 흑산도에 유배되고 1879년에 석방된다. 이후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20여 년간 향리에서 후진교육에 힘쓰다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906년 2월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리고 임병찬(林秉贊) 등 80여 명과 함께 전북 태인(泰仁)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때 그의 나이는 74세였다. 순창(淳昌)에서 약 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관군·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패전, 체포되어 쓰시마섬(對馬島)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급되는 음식물을 적어 주는 것이라 하여 거절, 단식을 계속하다가 그해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2. 제주유배와 생활

면암은 민씨 일족을 비난한 상소로 1873년(고종10) 11월 10일 제주도에 위리안치의 명을 받는다. 그는 이때의 상황을 “상소문이 대궐에 오르니, 오랏줄에 묶여 문초를 받았고, 갖은 형구가 목숨을 노리고 있었으나 바다 밖으로 귀양 가는 성운을 입었습니다.”³⁾라고 하였다.

면암의 제주도 유배는 1873년 11월 13일 금부낭청 이원의(李元儀)가 밤을 새워 한강을 건너 압송해가면서부터 시작된다. 28일 이진에 도착하여 12월 3일에 드디어 제주로 향하게 되는데 소안도에서 하루를 머물고 12월 4일 축시 경에 배를 띄워 사시에 제주도 조천포에 도착⁴⁾한다. 새벽에 출발하여 오후에 도착하였으니 순풍을 만나 아주 빨리 도착한 것이다.

그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배를 탄 뒤로 순풍을 만나 서니 시간 남짓하여 이곳에 도착했고, 아직은 별 탈 없으니 이로써 위안을 삼네.”⁵⁾라고 전했다. 면암은 조천포에 도착하여 진사에서 밤을 지내고 다

3) 崔益鉉, 『勉菴集』, 「橘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 “小子慧愚 猥忝食祿 尺疏披肝 斷置福 發言盈庭 縲紲就鞠 刀鋸桁楊 命在遲速 海外假息 感戴聖眷 困窮增益 伊恩非讎 三歲圍蓐 日月覆盆.”

4) 崔益鉉, 『勉菴集』, 年譜, “十二月 乙亥 丁丑 登船 櫓行七十里 抵所安島 戊寅 鷄鳴發船 巳時到泊濟州朝天浦.”

5) 崔益鉉, 『勉菴集』, 書, 「與從弟九玉」, “從駕海以後 卽得順風 僅三時餘 入泊信地

음 날 제주성안으로 들어와 아전 윤규환(尹奎煥)의 집을 적소(適所)로 정하고 본격적인 유배생활에 들어간다.

많은 유배인들이 그렇듯이 면암 또한 유배기간 동안에 독서활동에 주력을 하는데 특히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글에 매진한다. 이 밖에 한시를 지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서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또한 많은 제주사람들과 교류하였다.

면암은 1875년(고종12) 3월 16일 해배관문(解配關文)을 받고 해배된다. 해배되자 「굴림서원유지제오선생문(橘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을 지어 제주오현(濟州五賢)을 추모하였는데 자유인 신분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었다. 3월 27일에는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과 천불암 등의 명승을 두루 구경하고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를 남긴다.⁶⁾ 1875년 4월 12일 별도진(別刀鎭)에서 배를 띄워 제주를 떠난다. 이 때 문인 김희정(金羲正)과 관인 윤기복(尹奇福)이 배행(陪行) 하였다.⁷⁾

Ⅲ. 학통과 면암 최익현

1. 조선시대 학통의 의미

고려 말 전래된 주자학은 중국 송나라 때 새롭게 해석된 신유학이지만, 착안점에 따라 그 이름이 송학(宋學), 이학(理學), 정주학(程朱學), 주자학(朱子學), 성리학(性理學), 도학(道學) 등 다양하다. 그 가운데 도학이란 이름은 송대 성리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을 이단(異端)과 구별되는 진리(眞理)에 충실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규정해 사용한 명칭이다. 한국에서는 고려 말 신유학인 주자학이 수용·보급된 후 조선조 중종 때 조광조(趙光祖)에 이르러 도학으로 확립되었다. 도학의 수학·신봉자들은 도의 계통을 확립하고 정통과 이단을 명백히 준별(峻別)하여 유학을 정

尙無顯病 是可慰耳.”

6) 崔益鉉, 『勉菴集』, 年譜, “甲子 登漢拏山 遍觀白鹿潭, 千佛巖諸勝.”

7) 崔益鉉, 『勉菴集』, 年譜, “戊寅 黃昏 發船于別刀鎭 經二晝夜 卸下梨津 門人金羲正 舊館人尹奇福 陪行.”

학(正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를 유교문명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학문이자 이념으로 기능했다.⁸⁾

이러한 도학의 정통 흐름은 그 연원(淵源)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를 도통(道統)이라 한다. 일찍이 선진(先秦) 시대 맹자(孟子)가 공자(孔子)의 도를 옹호 부지하는 한편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학설을 이단으로 비판하였고 조선의 사람들은 학문적 업적과 도덕적 순정성 등을 토대로 문묘배향 등을 통해 도통 유현을 확정해 나갔다. 조선의 사림은 고려 말 주자학 이후의 도통이 정몽주(鄭夢周) → 길재(吉再) → 김숙자(金淑滋) → 김종직(金宗直) → 김굉필(金宏弼) → 조광조(趙光祖)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도통의 흐름은 세종 시대에는 이제현(李齊賢) → 이색(李穡) → 권근(權近)이 거론되었으며, 정몽주가 도통으로 처음 거론된 것은 세조 때이며, 김굉필은 중종(中宗) 때이다. 그 후 중종 39년(1544)에는 신백령(辛百齡) 등이 조광조의 신원을 요청하면서 정몽주 → 길재 → 김종직 →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을 제시하였다.⁹⁾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에 대한 문묘종사운동은 선조 때에 더욱 활발히 일어나 김굉필에 더해 그의 사우인 정여창(鄭汝昌)과 제자인 조광조,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보태 이른바 ‘동방오현(東方五賢)’에 대한 문묘종사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논란과 곡절을 거치면서 동방오현에 대한 문묘종사가 마침내 광해군 2년, 1607년에 모두 확정되었다.¹⁰⁾ 이렇듯 도통은 여러 번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사림과의 정통성 확보 과정과 정치권력의 향배와 관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의 건의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시 국론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문묘배향의 도통 유현 외에 조선의 사람들은 서원을 통해 자신들의 학문적 대표 인물을 배향하여 그 공덕을 기리는 한편 그 인물의

8) 이계석, 「조선조 칙사위정론의 연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제13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4, 68쪽 참고.

9) 김용현, 「도학의 형성,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문생들의 도학사상」, 『한국학논집』제4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150쪽 참조.

10) 홍원식, 「여말선초 영남사림의 ‘도통’과 ‘학통」, 『한국학논집』제4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12쪽.

사상과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뿌리를 공고히 하였다. 초기에는 학문과 덕이 높은 인물이 주로 배향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학파를 대표하는 사람, 다방면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 애국 충신이거나 유교적 규율에 의거해 행실의 모범이 되는 사람 등을 선정하였다.¹¹⁾ 그렇기에 서원에서는 문묘종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모셔놓고 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백 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 서원에 모셔지게 되었다.¹²⁾

이렇게 조선의 사대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통 유현을 지정하여 문묘 배향하였으며, 서원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학문적 연원을 배향함으로써 각 학파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대개가 도통 유현 및 서원 배향 유현과 사제(師弟)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본래 성리학 자체가 사제의 도통전수를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성리학을 배우는 사람의 학적 임무는 스승으로부터 도를 전해 받아서 제자에게 도를 전해주는 계왕개래(繼往開來)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¹³⁾

이처럼 조선의 사대부들은 학문과 사상의 계보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제관계의 연원(淵源)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사제관계의 연원은 다른 표현으로 학통이라 할 수 있다. 학통은 학문의 계통이나 경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학맥이나 학문적 계승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도통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계승의 측면에서도 이어질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도통유현의 확정과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문적 계승관계보다 정신적 계승의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통은 직접 수업하여 맺어지는 사제관계의 의미보다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의 직접수업의 형태인 집지(執贄)의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대면이 없는 서한교육(問目)만

11) 송은영·한준, 「조선시대 서원의 배향인물 연결망」, 『한국사회학』 제44집 5호, 한국사회학회, 2010, 27-28쪽 참조.

12)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 연구-도통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1986, 227쪽 참조.

13) 양진건, 위의 논문, 228쪽 참조.

으로도 사제관계는 성립될 수 있으며 또 한번의 예방(禮防)으로도 가능하였다. 좌주(座主)와 문생(門生), 성균교관(成均教官)과 유생(儒生), 서신왕래(書信往來) 및 한두 번 방문하여 학문적인 질의와 토론 등의 관계에서 사제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¹⁴⁾

2. 화서학통과 면암 최익현

면암 최익현은 14세 때 화서 이항로의 문인이 되어 화서학파의 일원이 된다. 그는 화서학파의 일원으로서 평생을 화서 이항로의 영향력 하에서 생활하며 화서의 학문과 사상을 실천해 나아갔다.

조선후기 퇴계학과(退溪學派)와 율곡학과(栗谷學派)는 다수의 학파로 분화하며, 유학의 이론적 심화와 다양화를 이끌었다. 이들 학파는 퇴계 이항로나 율곡 이이(李珣) 같은 명망 있는 인물과 그들의 문인, 그리고 직접 수학하지는 못했지만 사숙(私淑)한 이들이 그 구성원들이었다. 조선의 학파는 사제 관계라는 교육적 관계로 연결된 학문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¹⁵⁾

화서학파는 이항로의 ‘주리적(主理的) 관점의 학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인들과 그들의 학문을 말한다. 율곡의 학맥에서 이항로와 그의 문인들을 독자적 학파로서 갈라지을 수 있었던 계기는 그들의 ‘주리적 관점’의 성리학파 19세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전국적으로 지속된 문인들 주도의 사회실천 운동¹⁶⁾에 기인한다.¹⁷⁾

조선후기 성리학에서는 퇴계와 율곡을 절정으로 하여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과 기발일도설(氣發一途說)의 대립에 따른 이기설의 끝없는 철학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화서는 스스로 공자(孔子) → 주자(朱子)

14) 양진건, 앞의 논문, 231쪽 참조.

15) 김대식, 「화서 문인(華西 門人)의 입문(入門)과 그 의미」, 『한국교육사학』 제28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6, 23쪽.

16) 사회실천운동은 화서학파에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진행되었던 위정척사운동, 의병운동, 독립운동 등을 말한다.

17) 김근호, 「화서학파의 형성과정과 사상적 특징」,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09, 190-191쪽.

→ 우암의 도통을 제기함으로써 율곡 → 사계(沙溪) → 우암을 잇는 기호학파의 계열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받아들였고 이선후기(理先氣後), 이존기비(理尊氣卑), 이주지역(理主氣役)을 주장하여 이(理)우위를 강조하는 주리설을 확고하게 제시하였다. 그것은 율곡과 우암을 주기파로, 퇴계를 주리파로 분류하는 오늘날의 상식화된 분류 방법과는 반대로 도학의 근원적 성격은 퇴계학파나 율곡학파가 모두 주리설임을 밝혀 주는 화서의 성리학설이 가진 근본 입장이었다.¹⁸⁾

화서는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호락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고 양설을 조화하며 독자적 학설을 제시하여 화서학파라는 독자적 학파를 이루었다. 그의 사후(死後) 문인(門人)인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과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사이에 주리주기의 대립이 일어나 한말 격렬한 성리학 논쟁을 일으켰으나 화서 사상의 근원적 문제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이항로가 호락논쟁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단순한 절충적 입장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사상이 도학 정신의 근본을 주리론으로 파악하고 모든 분열을 근원해서 포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⁹⁾

앞에서 살펴본 대로 화서 이항로는 낙학파의 양설을 조화하며 독자적 학설을 제시했다. 그것은 도학 정신의 근본을 밝히면서 호·락 양설을 근원에서 포괄하며 도학의 정통으로 자리잡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한말 의리학(義理學)의 종장(宗匠)으로서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의 선봉을 이루었고 그의 문인들에게 이어져 몰락하는 한말 역사 상황에 정방향으로 대결하는 실천적 사상으로 실현되었다. 그 하나인 배청송명론(排淸崇明論) 의리 정신은 저항 대상을 청에서 서양과 일본으로 전환 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바, 당시 성리학의 의리 정신은 화서 이항로를 중심으로 집약되어 그의 제자인 중암 김평묵, 성재 유중교, 면암 최익현, 의암(義菴) 유인석(柳麟錫) 등에게 이어져 화서학파의 기본 이념으로 발전하였다.²⁰⁾

이러한 이항로와 화서학파의 정신은 당시 국제 정치 상황에서 조선의

18) 금장태·고광직, 『유학근백년(1), 기호계열의 도학』, 한국학술정보, 2004, 29쪽.

19) 금장태·고광직, 앞의 책, 29쪽.

20) 노인숙, 『면암 최익현 한시 연구』, 국학자료원, 2002, 47쪽.

체제보위라는 실천목표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즉, 그의 사상은 이존기비(理尊氣卑)의 논리에서 서양의 존재를 기(氣)로 보고 도심의 본체인 조선의 체제와 문화가 주(主)가 되는 자존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화서학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개항이라는 문제 앞에 서서 개항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위정척사운동을 벌였다.

이항로의 뒤를 이은 최익현 역시 “오직 이(理)는 먼저요 기(氣)는 뒤이며 이(理)는 주(主)가 되고 기(氣)는 객(客)이 되며, 이는 장수(將帥)가 되고 기(氣)는 졸개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큰 분계(分界)로서 털끝만큼이라도 어지럽혀서는 안된다.”²¹⁾는 주리설(主理說)을 주장하였다. 또 심성론에서 “사람의 한 몸에서 살펴본다면 성(性)은 진실로 사람에게 있는 태극(太極)이다. 그러나 그 본체는 마음에 갖추어져 있고 작용은 정(情)에서 이룬 것이다. 마음은 어둡고 밝은 차이가 있고 정(情)은 지나치고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욕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공부를 더 한 다음에야 이 성(性)이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²²⁾고 하여 성즉리설(性卽理說)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적 입장을 바탕으로 최익현을 포함한 화서학과 인물들은, 현실적 승산보다는 대의에 따른 신념으로 병인양요로부터 일제 침략에 이르는 역사적 전환의 위기에 척화론의 주장에서 의병 운동에 걸쳐 춘추대의를 다시금 강경하게 제시함으로써 배청론(排淸論)의 대의를 계승하고, 대의를 통하여 정당한 국가와 정당한 황조를 지키려고 싸웠던 것이다.²³⁾

이러한 춘추대의 사상은 조선의 전 시대를 통하여 일관된 선비 정신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으며, 면암 최익현과 인연을 맺은 제주학인들 역시 이러한 면암의 정신을 계승하여 제주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항일운동

21) 崔益鉉, 『勉菴集』, 雜書, 「書示高淸汝」, “惟理先而氣後 理通而氣局 理爲主而氣爲客 理爲帥而氣爲卒 此則大分 毫忽不可亂也.”

22) 崔益鉉, 『勉菴集』, 雜書, 「書示高淸汝」, “就人一身上觀之 則性固在人之太極也 然體具於心而用達於情 心有昏明之異 而情有過不及之弊 故必加克治之工 然後此性始全.”

23) 金장태, 『이리 사상과 선비정신 - 한국사상의 심층』, 우석, 1996, 228-231쪽 참조

을 전개하게 된다.

IV.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

면암 최익현은 1873년 11월 13일 매섭게 몰아치는 추위를 뚫고 금부낭청 이원익에 의해 제주 유배길에 오른다. 집안의 지인과 시종 한 명이 뒤따랐으며, 자식들에게는 할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독서를 부지런히 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그 후 1875년(고종12) 3월 16일 해배관문(解配關文)을 받고 해배될 때까지 17개월 동안 제주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면암의 제주유배는 제주의 유림들에게는 하나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는 지리적 여건과 출륙억제정책,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학문적 깊이가 다른 지역보다 튼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제주 유림들은 제주로 유배 오는 사대부를 스승으로 삼아 학문적 갈증을 해소하곤 하였다. 특히 출륙억제정책은 약 200여년 지속되었고 제주도의 대외적인 교육 진출의 길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출륙억제정책의 여파로 제주도 교육은 유배인들에게 의존함이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출륙억제정책은 순조대(純祖代)인 1820년 경 해제되었으며 이로써 많은 제주문사들이 출륙하여 여러 거유(鉅儒)들 밑에서 직접수업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배인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으며 따라서 조선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거유인 면암의 제주유배는 제주유림들에게는 큰 배움의 기회였던 것이다.

면암은 17개월의 제주유배생활동안 많은 제주문인들과 종유(從遊)하고 사제관계를 형성한다. 면암과 인연을 맺은 제주유림들은 제주에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과 사회실천운동으로 면암의 사상을 계승해 나가며 그러한 결과 그들은 면암의 제주학통이라 할 수 있다.

1. 면암의 제주문인(濟州門人)

면암집(勉菴集)의 연보를 보면 선생은 제주유배 생활동안 “도중(島中)

의 문사(文士)로 안달삼(安達三)·김희정(金羲正)·강기석(姜基碩)·김용징(金龍徵)·김훈(金堧)·김치용(金致瑢)·김양수(金養洙) 같은 이들이 왕래하며 중유하였다.”²⁴⁾고 하고 있다.

그리고 면암은 형님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곳의 안달삼, 김훈, 김희정이 세 사람은 뜻이 있는 선비들입니다.” 라고 하고는 김훈을 유럽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 김희정은 행동이 신중하며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평가하였다.²⁵⁾

이들 중 김희정²⁶⁾은 제주도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면암의 사우록(師友錄)에 등재²⁷⁾된 사람으로서 명실공히 면암의 제주 초전(初傳)이자 적전(嫡傳)이다. 또한 면암은 김희정을 자신의 문인이라 칭했으며²⁸⁾ 면암이 해배될 때 김희정은 면암을 배행한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도학으로는 소백(小栢) 안달삼을 시학으로는 해은(海隱) 김희정을 남주(南洲) 제일인자²⁹⁾로 뽑을 정도였으며 김희정은 후에 서원철폐령에 따라 굴림서원이 훼손되자 1890년 제주유림들과 석실서원을 발의하고 서원 터에 조두석(俎豆石)을 배열하여 오헌제단을 마련하여 1년에 한 번 분향하도록 함으로써 면암의 뜻을 이어나갔다. 그는 매계(梅溪) 이한진(李漢震)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으며, 매계와 면암의 애국사상과 외세배격론에 영향을 받아 민족 지사적인 훈학자라고 일컬어졌다.³⁰⁾

김희정은 1902년(광무 6) 가을에 면암이 현재의 충남 청양군 목면 송암리인 정산(正山) 장구동(藏龜洞)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지

24) 崔益鉉, 『勉菴集』, 年譜, “島中文士 如安達三, 金羲正, 姜基碩, 金龍徵, 金堧, 金致瑢, 金養洙諸人 往來從遊.”

25) 勉菴崔益鉉先生崇慕事業會, 면암최익현 선생 편지집, 문학공원. 2009, 73쪽.

26) 김희정(金羲正, 1844~1925)은 일명 ‘희정(羲鼎)’이라고도 표기하였으며, 자는 우경(佑卿), 호는 해은(海隱) 혹은 포규(蒲葵)라 불렀다. 본관은 김해이며, 조천읍 조천리에서 태어났다.

27)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대학사, 1985, 參照.

28) 崔益鉉, 『勉菴集』, 年譜, “戊寅 黃昏 發船于別刀鎭 經二晝夜 卸下梨津 門人金羲正 舊館人尹奇福 陪行.”

29) 吳文福, 『瀛州風雅』, 이화문화출판사, 2006, 227쪽.

30) 김찬흠 編, 『제주항일인사실기』, 제주문화원, 2005, 297-298쪽 참조.

만 배알하지 못했고 이에 칠수(七首)의 시를 지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³¹⁾ 후에 면암의 만사(輓詞)와 제문(祭文)을 지었다. 만사³²⁾를 살펴보면 「… 덩블처럼 무성해져서 우리의 도(道)가 막힐 것을 근심하여 사악한 이단(異端)의 설(說)을 물리쳤었고, 육지에서 일어날 상황을 염려하여 오랑캐와의 화해를 배척했었던, 하늘에서 밝은 빛을 다투는 해와 달과도 같으신 분으로…」라고 하였다. 면암의 사상과 행위를 높이 찬양하며 끊임없는 존경심과 애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김희정은 면암의 제주적전으로서 면암의 제주 학통을 연결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희정은 제주에서 김희선(金熙璿), 김시우(金時宇)등의 제자를 가르친다. 따라서 김희선, 김시우는 모두 면암의 제주학통이 되는 것이다. 또한 김희정의 손자 김필원(金弼遠), 김중원(金重遠), 김평원(金平遠), 김지원(金志遠)등도 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김희정의 가계(家系)를 통해 형성된 면암의 제주학통으로 볼 수 있다. 즉 면암 제주학통 형성(形成)의 최대 학맥은 최익현 → 김희정 → 김희정의 제자·김희정의 가계로 형성되고 있다.

김희정 외에 지역향토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암의 제주문인은 김종현(金鐘炫), 오방열(吳邦烈), 홍종율(洪鐘律) 등이다. 지역향토지의 내용을 토대로 사)화서학회(華西學會)에서도 면암의 제주 문인으로 위의 네명을 명시하고 있다.³³⁾ 사)화서학회에서는 위의 네명 외에 이응호(李膺鎬) 역시 면암의 제주문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진재(震齋) 이응호는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⁴⁾ 진재 이응호는 굴암(橋菴) 이기온(李基溫)의 아들로 이기온은 장성의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생이었다. 그런데 이기온은 면암 최익현과도 가깝게 지냈으며 면암이 지은 「유한라산기」에서 그 이름이 보이는데 이때 지로인으로서 동행하였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이기온과 이응호는 면암의 제주문인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장에서 살펴볼 종유의 학통으로

31) 김희정, 『海隱文集』, 백규상 譯, 제주문화원, 2014, 8쪽.

32) 김희정, 앞의 책, 375쪽.

33) 사)화서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cafe.daum.net/hwaseo-society>

34) 김찬흠 編,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342쪽.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된다.

묵농 김종현³⁵⁾은 면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사부(詞賦)에 능하고 병려문(倂儷文)을 짓는 데는 한때 문단의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한다. 벗 김홍점(金鴻漸, 김석익)이 그를 위해 전기를 썼는데 다음과 같다. 「공은 어린 때부터 재주가 넘쳐흐르고 단짠들과 막힘없이 성장, 경사제자(經史諸子)란 학문에 널리 통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최면암(崔勉菴)의 문하에 들어가 그의 발꿈치를 따르며 성명(性命)의 심오함과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를 얻었다. 고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도의를 가지고 넓게 판단하고, 털끝이나 실오라기 풀어가듯 분명히 하여 그 힘이 대쪽을 깨뜨리듯이 문장으로 피어났다.」³⁶⁾ 1905년 이후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졌음을 감지하게 되면서 서당 교육을 통하여 국권 회복운동을 펼쳐 나갈 결심을 갖게 되고, 이는 면암최익현의 구국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전략이었다. 비록 반봉건(半封建)이란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도 향촌사회의 선비로서 끝은 절개를 지켰다. 1910년 국망(國亡)의 치욕에 이를 갈며 민족혼과 향토애를 잊겠다는 뜻에서「탐라지」를 저술하였다. 성품도 호방하여 거침없이 말을 하더니 성산면 시흥리의 역들서당(力厓書堂)에서 42세로 타계하자 문학생들과 문우들이 몹시 슬퍼했다고 한다.³⁷⁾

세 번째로 살펴볼 면암의 제주문인은 오방열이다.³⁸⁾ 오방열은 경암(敬菴)이라는 호를 썼는데 굴암(楡菴)이라는 이기온의 호를 면암이 써준 것으로 비춰보아 오방열의 호도 면암이 암(菴)자를 준 것이라 생각된다. 그는 면암이 귀양왔을 때 의청(毅淸) 오진조의 주선으로 정의현 고을 안의 여러 선비들과 같이 배움을 청하였다. 생부 오진조(吳眞祚)는 훈학자(訓學子)로서 명성을 떨쳐 1847년의 정의향교(旌義鄕校) 청궁안(靑矜案)

35) 김종현(金鐘炫, 1875~1916)은 자는 중명(重明 又 文坪), 호는 묵농(墨農)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제주 성내에서 태어나 처음 이름은 김철희(金喆熙) 또는 김용한(金容漢)이라고도 하였다.

36) 제주문화원, 『譯註 增補耽羅誌』, 2005, 658쪽 참조.

37) 김찬흠 編, 앞의 책, 2000, 177쪽 ; 김찬흠 編, 앞의 책, 2005, 297-298쪽 참조.

38) 오방열(吳邦烈, 1851~1914)은 자는 태강(泰康), 호는 경암(敬菴)이다. 경암은 큰 학자는 아니고 정의향교의 재임(齎任)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뜻 가짐이 곧았다고 한다. 본관은 군위(軍威)이며 성산읍 신평(新豊)리에서 오진조의 말아들로 태어나 오한조(吳漢祚)의 양아들이 되었다.

과 탐라인물지에 등재된 명사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들 오방열도 정의향교의 재임(齎任)으로 있을 때에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당시 정의군수가 일제의 사주에 의해 향교의 전패(殿牌 : 국왕의 상징물)를 철거하여 외부에 묻어버리려고 하였다. 이에 오방열은 서통유사(書筒有司) 김신황(金愼璜)을 시켜 정의현 관내 4개 면의 유림들을 정의군 성내로 모이게 한 후 결사 항거 하였다.

1912년 일본인 관리가 상사의 명령이라 하여 객사의 전패를 철거하려 하자 오방열이 다시 군민들을 모아 성토했다. “비록 나라는 망했으나 우리의 황제 폐하께서 생존하고 계신데 어찌 전패를 묻어 없앨 수 있는가!” 하니 당국에 체포되어 심한 체벌을 받아 결국 형독(刑毒)으로 겨우 한해를 넘겨 사망하였다. 제주 삼읍(三邑)의 문사들에 의해서 사림장(士林葬)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 후 오방열의 뜻을 받아들여 유림들은 정의향교 가까이 있는 의사묘(義士廟)로 새롭게 전패를 옮겨 모셨다.

의사묘는 난산리 태생 의사 오흥태(吳興泰)가 영조 때에 중아에서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한 관계로 그를 모신 사당이다. 세상 사람들은 일제의 강권에 저항한 오방열의 충군애국(忠君愛國) 사상에 감복하여 “옛날의 오의사(吳義士)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남원면 태흥리의 선비 우석(友石) 김희은(金熙殷)이 광복 후에 「정의향교 대성전 전패봉안기」에 기록하여 전해진다.³⁹⁾

면암 역시 제주유배 당시 제주의사 오흥태를 기리는 시를 남기는데⁴⁰⁾ 이는 면암이 항상 강조한 의리정신이 오의사를 통해 발현됨을 찬양한 것으로 면암에게 있어 제주도 사람 오흥태는 화서학과와 면암이 강조하던 춘추의리사상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면암의 제주문인 오방열 역시 의리사상을 몸소 실천하여 면암의 뜻을 이었으며 이는 곧 제주유림들에게 훌륭한 교육적 모범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굴헌(橘軒) 홍종율⁴¹⁾은 면암을 사사하여 문명(文名)이 높았던 인물이다. 1904년(광무 8) 지방에서 실시한 제1차 시험(鄕貢·貢貢)에 합격하여

39) 김찬흡 編, 앞의 책, 2005, 408쪽 참조.

40) 양진간·강동호, 앞의 논문, 2014, 62쪽 참조.

41) 홍종율(洪鐘律, 1862~1905)은 자는 치도(雉度) 호는 굴헌이다. 본관은 남양이며 조천면 신촌리에서 정의현감 홍재진(洪在晉)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균관박사로 제수되었다. 홍종율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은 찾기 어려우나 홍종율의 가계를 통해서 면암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홍종율의 부친인 홍재진(洪在晉)은 한말 정의현감을 지냈는데 1898년(광무 2) 1월 방성칠(房星七)이 난을 일으키자 전 현감 송두옥(宋斗玉)과 함께 창의소를 설치하고 의병을 모집하였다. 무과 출신 김남윤(金南胤)으로 하여금 방성칠을 체포하게 하여 난을 진압하였다. 또한 홍종율의 아들 홍순일(洪淳日)과 홍종율의 조카 홍순기(洪淳起)는 모두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가로 활약하였다.⁴²⁾

김희정은 다음과 같은 홍종율의 만사를 남기며 애통해 하는데 면암의 문하에서 동문수학(同門修學) 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박사 홍종율 만사⁴³⁾

그대와 더불어 경서를 읽고 토론할 적에
 긴요한 공부 부지런히 하는 걸 보았으니
 도(道)가 있는 이를 찾아가서 질정(質正)하고자 면암 선생을 찾아갔다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과거를 보아 성균관 박사가 되었는데
 ……

2. 종유(從遊)의 학통

앞서 언급했듯이 면암집에는 제주유배생활동안 면암과 종유한 인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 중 앞서 살펴본 면암의 제주문인 외에 본 장에서 살펴볼 인사는 안달삼,⁴⁴⁾ 이기온,⁴⁵⁾ 이응호 등이다. 종유란 학덕이 높은 사람과 어울려서 사귀는 행위로서 고위 정객이 제주도에 유배를

42) 김찬홍, 앞의 책, 2000, 431참조.

43) 김희정, 앞의 책, 357쪽.

44) 안달삼(安達三, 1837~?)은 자는 행오(行五)이고, 호는 소백(小栢)이다.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제주도 조천에서 태어났다. 이한우(李漢震)에서 사사하였으며, 1883년(고종20)에는 초시에 합격하였다.

45) 이기온(李基璠, 1834~1886)은 자는 온옥(溫玉)이며 호는 굴암(橋巖), 굴당(橋堂)이다.

왔을 때 제주도 지식인들이 행하는 교육활동의 대표적인 양식이었다.

중유의 학통에서는 유교의 전통적 스승관이 참고된다. 유교에서는 전통적 스승의 분류를 인사(人師)와 경사(經師)로 나누어 보았다. 경사는 말 그대로 ‘경서의 스승’, 즉 글귀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인사는 ‘인간의 스승’ 즉 인간 됨됨이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에 의해 성립되는 사제관계는 ‘동반적 사제관계’요 결국 ‘사제동행(師弟同行)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⁴⁶⁾ 이런 측면에서 안달삼과 이기온, 이응호는 면암과 사제동행한 제주문인들이며 그들과 면암의 학문적·사상적 교류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안달삼과 이기온은 노사 기정진의 문하생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노사는 한말 화서와 함께 위정척사의 양대산맥을 이룬 대표적 인물이다. 면암의 제주유배는 안달삼, 이기온과의 인연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개인의 만남을 넘어서 화서학과와 노사학과의 교류를 제공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만남은 제주에서 위정척사사상이 확산되는데도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안달삼은 장성에 있는 노사 기정진을 찾아가 사사하여 후에 기정진의 문인록에도 등재된 노사의 문인이었다.⁴⁷⁾ 그는 면암과 교류하면서 도덕과 학문을 겸비한 선비로 칭찬을 받았다. 안달삼은 면암과 공유하는 동안 자신의 스승인 노사의 글을 등사한 것을 면암에게 보여준다.

「선생이 어렸을 적부터 기공의 덕의(德義)를 우러러 존경하였는데, 적소(謫所)에 있을 적에 그의 문인 안달삼(安達三)을 인연하여 그의 학문을 논한 문자 수십 편을 얻어 보고는 ‘이는 우리 화서 선생의 지결(旨訣)과 대략 비슷하다.’ 하고, 등초(謄抄)하여 2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아왔다. 이때에 와서 처음으로 들러 뵈니, 기공의 나이 78세였다.⁴⁸⁾」

46) 김병희, 「유교적 교육 전통에서의 사제 관계의 성격」, 『사회사상과 문화』 제7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137쪽.

47) 尹榮善, 앞의 책, 參照.

48) 崔益鉉, 『勉菴集』, 年譜, “先生自少景仰奇公德義. 曾於在謫時. 因其門人安達三. 得見其論學文字數十篇. 以爲此與我華西先生旨訣. 大畧相似. 遂謄抄爲二冊子而歸. 至是. 始歷謁. 奇公時年七十八也”

안달삼과의 인연으로 면암은 어렸을 적부터 존경하던 노사의 학문을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배되어 돌아가는 길에 장성 하사로 노사 기정진을 예방한다. 노사는 면암의 스승인 화서와 더불어 19세기 중엽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충격 속에 조선 성리학 사상의 정통적 맥을 이어 척사논의를 강력하게 전개한 조선 도학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따라서 면암은 학과를 떠나 노사의 사상과 학문을 흠모하였고 그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유배지 제주도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면암은 이후 노사에게 두 번의 편지를 통해 안부를 묻고 존경심을 드러내었으며, 제주에서 등사한 노사의 논설들을 강습의 자료로 삼기도 하였다.⁴⁹⁾ 면암은 이후 1879년(고종 16년) 3년 동안의 흑산도 유배에서 풀려날 때도 장성의 노사를 예방하였으나 이미 노사는 82세로 병이 위중하였다.

이렇게 면암은 스스로 노사를 두 차례 예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사 문하와도 폭넓게 교류하여 학문적 유대감을 확인해 왔는데 이 때문에 그는 1901년(고종38) 노사 신도비의 비문을 짓게 된다. 면암은 화서와 노사가 수백 리 떨어져 하루도 만난 일이 없지만 그 주장이 주리를 종지로 삼는 데 서로 일치하였음을 지적하고, 노사의 신도비문에서 “대의를 들어 간사한 논의를 꺾고, 불끈 성내어 홍수(洪水)·맹수(猛獸)의 화를 몰아내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삼은 두 원로(元老)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노사(蘆沙) 기 선생(奇先生)과 화서(華西) 이 선생(李先生) 이름은 항로(恒老)이다.”라고 하여 화서와 노사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였다.⁵⁰⁾

조선말기 제주도의 대표적 유학자였던 이기은은 유배인 간옹 이익(李瀾)의 후손이다. 그는 안달삼과 함께 기정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891년(고종 28) 칠봉서당을 창설하고 기정진의 문인이며 성균관 교수로 있던 고성겸(高性謙)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개시했다. 1899년(광무 3) 화재로 고성겸과 제자 한 명이 불에 타 숨지고 칠봉서당이 소실되자 이 자리에 다시 문연서당(文淵書堂)을 열고 아들 이응호가 계승,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암이 한라산에 오를 때 이

49) 崔益鉉, 『勉菴集』, 書, 「上奇蘆沙」, “並互相傳寫. 以資講習. 亦將有早晚齋贊. 以遂景仰之願者. 以此觀之.”

50) 崔益鉉, 『勉菴集』 「蘆沙先生奇公神道碑銘」, “任闢邪之功黜主氣之學以當一治之運”

기온의 길 안내를 받고 함께 올랐던 기록이 나온다. 그 같은 인연으로 이기온은 면암의 휘호를 받아 백록담과 방선문 암벽에 제명을 새기고 서당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1931년에는 이기온과 이응호의 제자들이 이기온과 면암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해 문연사(文淵社)라는 제단을 설립하고 매년 정월 중순에 제를 지냈는데 그 향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3. 면암 학통의 독립운동

면암 최익현의 영향을 제주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09년의 제주의병(濟州義兵), 비밀결사체인 집의계(集義契)의 결성, 신좌면(현 조천읍) 조천리의 3·1 운동이다. 먼저, 1909년 제주의병의 의병장이었던 고승천(高承天(別名 仕訓)은 최익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척사론을 본받아 의(義)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고승천이 면암의 순국 소식을 듣고 김석윤(金錫允)과 의병창의를 결심한 것에서도 확인된다.⁵¹⁾

다음으로 집의계 결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이응호⁵²⁾였다. 집의계에는 이응호외에 김좌겸(金左謙), 김병로(金炳路), 김병구(金炳龜), 김이중(金履中), 서병수(徐丙壽), 고석구(高錫九), 김석익(金錫翼), 강철호(姜哲鎬), 강석중(姜錫宗), 임계숙(任戒淑), 김기수(金基洙) 등 12명의 제주도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한다.⁵³⁾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응호는 송사 기우만의 문인이면서도 사)화서학회에서는 면암의 문인이라 할 정도로 면암과 깊게 교류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강철호는 면암과 직접 종유했던 사람이며, 김병로는 이기온의 제자로서 12명 모두 면암의 교육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로써 볼 때 집의계 결성은 화서학과, 즉 면암 최익현의 영향과 노사학과와의 전

51) 김동진, 「濟州人の 3·1運動과 그 영향」, 『탐라문화』제1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190-191쪽.

52) 이응호(李膺鎬, 1871~1950)는 호는 진옹(震翁)으로 이기온의 아들이다. 그들은 유배인 간옹 이익(李瀾)의 후손으로 조선말기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다.

53) 梁鎭健,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99, 216쪽.

통 아래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의 3·1운동은 조천리 김시우(金時宇)의 소기를 거사일로 하여 발생하였다. 김시우⁵⁴⁾는 조천지역의 대표적인 유림이었는데, 그는 최익현의 제자문인인 김희정의 제자였다. 따라서 김시우의 사상적 위상은 최익현의 척사계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의 주도세력이 김시우의 직계친(直系親)이었다는 점에서 면암의 영향을 받은 김시우의 역할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⁵⁵⁾

사)화서학회에서는 2010년 10월 발간한 [화서연원 항일구국운동 인맥도]에서 제주지역 화서연원의 총수는 17명이고 그 중 11명이 항일 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⁵⁶⁾ 그 인물들은 김희정, 김종현, 오방열, 이응호, 김시우, 김희선(金熙璿), 김평원(金平遠), 김필원(金弼遠), 김지원(金志遠), 김시학(金時學), 김유배(金濡培)이다.

[화서연원 항일구국운동 인맥도]의 제주 인물들은 모두 면암의 영향을 받은 면암의 제주학맥들이다. 즉, 화서 이항로 → 최익현 → 제주 유림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그 중 대부분은 면암의 초전인 김희정의 제자 혹은 자손으로서 면암 제주학통의 정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김희선⁵⁷⁾ 역시 김희정의 문인이었다. 그는 한시를 잘 짓고 특히 해서와 반행(半行)에 능했다고 한다. 그는 1898년 방성철이 민란을 일으키자 창의병에 가담하였는데 함덕리에서 피살되었다. 김희선이 젊은 나이에 죽자 스승인 김희정은 제문(祭文)을 지어 그 혼을 위로하였다. 김희선이 최익현 → 김희정의 사상을 이어받아 이단을 물리치고 의리를 실천하였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 그대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타고나서 뜻을 돈독히 하여 힘써 배

54) 김시우(金時宇, 1875~1818)는 김희정의 문인으로 조천리 출생이다. 자는 강녀(剛汝), 호는 만취(晩翠)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55) 김동전, 앞의 논문, 190-191쪽.

56) 화서학회, [화서연원 항일구국운동 인맥도](편집 : 장삼현), 2010, 93-94쪽.

57) 김희선(金熙璿, 1863~1898)은 조천리 출신이며 자는 순형(舜衡), 호는 농은(農隱), 본관은 김해이다.

웠으니 뜻을 세운 바가 있었다. 사악한 이단(異端)의 설을 물리치고 성현을 사모하여 못(이단의) 책을 버리고(성현의) 경적(經籍)을 깊이 연구하였으니 이치를 분별함에 분명함이 칼로 잘라 들로 가르듯 하여 힘써 백 척의 장대와 같은 높은 경지로 나아갔다.⁵⁸⁾ …」

김희정의 직계 자손들 역시 주도적으로 항일운동을 펼친다. 김평원⁵⁹⁾은 김희정의 손자로서 조천에서 항일운동을 벌였고 일제에 의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김필원⁶⁰⁾ 역시 김희정의 손자이며 김평원의 아우이다. 그는 1919년 3월 21일 제1차 조천만세운동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이 일로 8개월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1995년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아 독립운동의 공을 인정받았다. 김지원⁶¹⁾ 역시 김희정의 손자로서 첫 번째 제주의 현대시인으로 등단하였다. 서울로 올라가 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1926년 6.10만세운동에 가담하였다.

김시학⁶²⁾은 김희정의 문인이면서 만취 김시우의 동생이다. 김시학은 재경도한인유학생회(在京都韓人留學生會)라는 독립운동 조직에서 회계를 맡는 간부로 선출되는 등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김시학의 아들 김장환은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김유배⁶³⁾는 김희정의 문인이었던 김희선의 아들이다. 따라서 김유배는 최익현 → 김희정 → 김희선 → 김유배로 이어진다. 김유배 역시 1919년 3월 23일 조천의 만세운동에 가담하고, 김형식의 금대명(琴臺銘)을 지어 비를 세우고 만세운동의 유적을 길이 표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면암의 제주학통들은 면암과 화서학파의 학풍을 이어받아 그 정신을 올곧게 실천했으며 이는 제주도의 항일 운동으로 계승,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58) 김희정, 앞의 책, 522쪽.

59) 김평원(金平遠, 1855~?)은 조천리 출신으로 김희정의 손자이다.

60) 김필원(金弼遠, 1900-1950)은 조천리 출신으로 김희정의 손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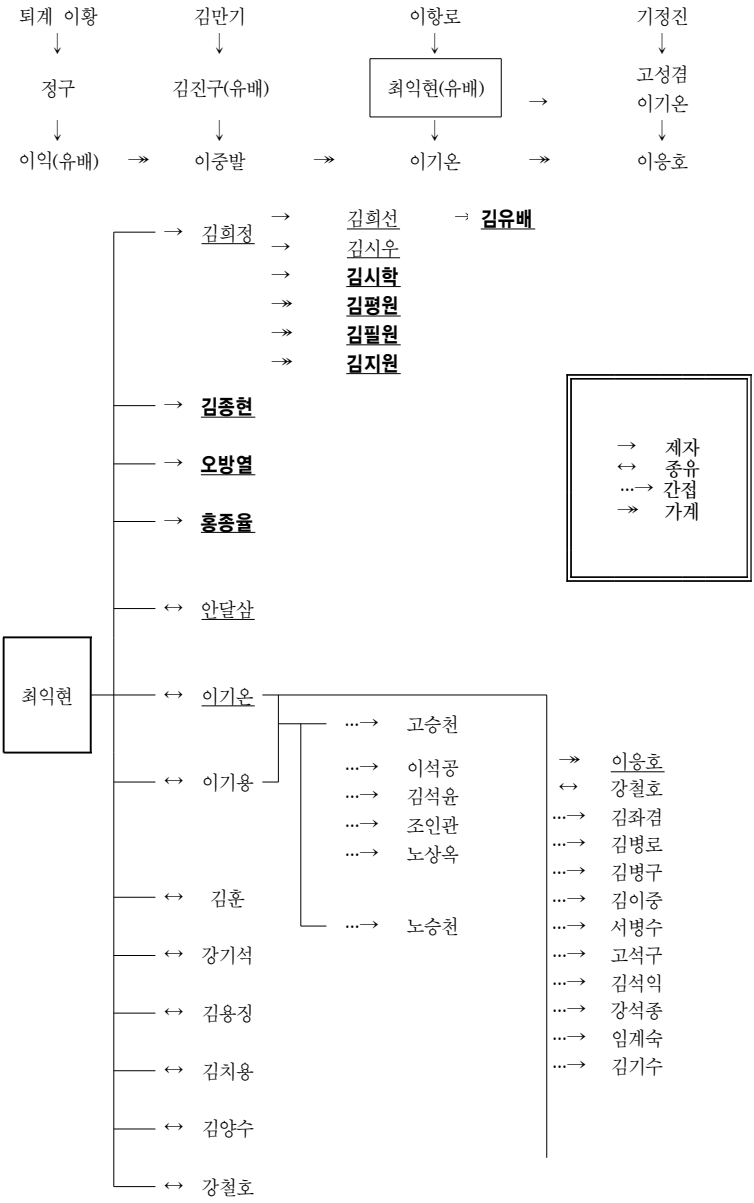
61) 김지원(金志遠, 1905~1986)은 김희정의 손자이다.

62) 김시학(金時學, 1881~1949)은 김희정 문인으로 자는 효원(效元)이고 호는 동강(桐岡)이다. 조천면 조천리 출생이다.

63) 김유배(金濡培, 1896~1962)은 김희선의 문인이며 조천리 출생이다.

지금까지 면암의 제주학통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다음의 그림은 면암의 제주학통을 도식화한 것이다.⁶⁴⁾ 기존의 연구(면암 최익현 유배서간의 교육적 의미)에서 조선말기 제주교육의 전통 흐름을 그림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추가된 인물들을 굵은 색으로 표시하였고, 본 고에서 살펴본 제주학통은 밑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물들이 계속 축적되어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인물이 빠짐없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64)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면암의 제주학통 인물은 김희정, 김종현, 오방열, 홍종율, 안달삼, 이기운, 이응호, 김희선, 김시우, 김시학, 김평원, 김필원, 김지원, 김유배이다.



[그림 1] 면암의 제주학통과 조선말기 제주교육 전통 흐름

V.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학통의 의미를 토대로 하여 여러 자료를 통해 면암의 제주학통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는 사제관계의 연원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학맥이나 학문적 계승관계를 통해 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파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학통은 직접 수업을 받은 제자인 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학문적 계보나 사상적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지속 가능한 것이다.

우선 기록으로서 면암의 제주학통을 조망해 보았다. 면암이 남긴 문인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주유림은 김희정이 유일하였다. 가장 공신력(公信用)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 점은 아쉬우나 지역 향토지에서 면암의 문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암이 시기적으로 아주 오래전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 향토지의 자료는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면암과 공유한 인물들을 공유의 학통이라 명명하고 논의하였다. 공유의 학통에서는 유교의 전통적 스승관을 참고하였다. 유교에서는 전통적 스승의 분류를 인사와 경사로 나누어 보았다. 경사는 말 그대로 ‘경서의 스승’, 즉 글귀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인사는 ‘인간의 스승’ 즉 인간 됨됨이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에 의해 성립되는 사제관계는 ‘동반적 사제관계’요 결국 ‘사제동행’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고에서 논의한 공유의 학통은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면암의 영향을 받은 제주학통들의 항일운동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사)화서학회의 [화서연원 항일구국운동 인맥도]가 참고 되었는데 화서 이항로 → 면암 최익현 → 제주유림으로 이어지는 제주학통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위정척사와 체제보위라는 면암의 사상적 정체성을 항일운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점에서 이견(異見)이 없는 면암의 제주학통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제주가 조선시대 여러 가지 이유⁶⁵⁾로 영남학파나 기호학파와 같은 학풍이나 학파가 형성되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제주지역도 조선의 정통(正統) 도학(道學)의 흐름이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5) 조선시대 제주는 극변(極邊)의 지리적 환경과 200여 년 동안 지속된 출륙억제정책(出陸抑制政策),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학문적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최익현, 『면암집(勉菴集)』
- 김희정, 『해문집(海隱文集)』, 白圭尙 譯, 제주문화원, 2014.
- 금장태, 『의리 사상과 선비정신 - 한국사상의 심층』, 우석, 1996.
- 금장태·고광직, 『유학근백년(1), 기호계열의 도학』, 한국국학진흥정보, 2004.
- 김근호, 「화서학과의형성과정과정사상적특징」,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09.
- 김대식, 「화서 문인(華西 門人)의 입문(入門)과 그 의미」, 『한국교육사학』제28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6.
- 김동전, 「濟州人의 3·1運動과 그 영향」, 『탐라문화』제1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김병희, 「유교적 교육 전통에서의 사제 관계의 성격」, 『사회사상과 문화』제7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1.
- 김용현, 「도학의 형성,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문생들의 도학사상」, 『한국학논집』제4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 김찬흠 編,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 _____, 『제주항일인사실기』, 제주문화원, 2005.
- _____,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 노인숙, 『면암 최익현 한시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면암최익현선생숭모사업회, 『면암최익현 선생 편지집』, 문학공원, 2009.
- 송은영·한준, 「조선시대 서원의 배향인물 연결망」, 『한국사회학』제44집 5호, 한국사회학회, 2010.
-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 연구-도통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제3집, 제주도연구회, 1986.
- _____,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99.
- _____, 「면암 최익현의 제주교학활동 연구」, 『한국교육사학』제24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2.
- _____,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 양진건·강동호,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서간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제35권 제4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 _____,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제주교육에

- 미친 영향, 『인문학논총』제35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오문복, 『영주풍아(瀛州風雅)』, 이화문화출판사, 2006.
- 윤영선, 『조선유현연원도(朝鮮儒賢淵源圖)』, 태학사, 1985.
- 이재석, 「조선조 척사위정론의 연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제13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4.
-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교육통사』, 1974.
- 제주문화원, 『역주 증보담라지(譯註 增補耽羅誌)』, 2005.
- 홍원식, 「여말선초 영남사림의 ‘도통’과 ‘학통」, 『한국학논집』제4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 화서학회, [화서연원 항일구국운동 인맥도](편집 : 장삼현), 2010.

사)화서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cafe.daum.net/hwaseo-society>

Abstract

A study on the Jeju scholastic mantle of Myunam Choi Ik-hyun

Kang, Dong-Ho*·Yang, Jeon-Gun**

This study had a purpose to define the Jeju scholastic mantle of Myunam Choi Ik-hyun. He made relationships with a variety of people and shared his study and idea for 17 months of the exile in Jeju. Through many documents, this study checked men of letters of Myunam, and examined Jongyouja and those who participated in anti-Japanese movement as members of scholastic mantle of Myunam. They can be considered as members of Jeju scholastic mantle of Myunam, because they had been taught by Myunam directly or had kept the Myunam's ideological identity. Through this study, the stream of authentic Dohak (Tao learning) existed even in Jeju, and it 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Key Words : Myunam Choi Ik-hyun, Jeju exile, Hwaseo study, Jeju scholastic mantle, Jeju anti-Japanese movement

* Lead Author, Jeju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 양진건 690-8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E-mail: yjgeon88@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4. 12. 31.

심사완료일 2015. 02. 02.

계재확정일 2015. 02. 10.